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근본적으로 망상이란 없는 것이고

그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일으키는 본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여러분이 아무리 석탄을 깨끗이 닦고 문질러도 석탄을 하얗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석탄이 본래 검은 것처럼, 무명이 인간의 고유한 본성의 일부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명과 망상은 제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명은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모습을 취합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처럼 말입니다. 한순간 구름이 커다란 흰 색의 덩어리를 형성하면 태양의 빛을 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름을 향해 날아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실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명이 만들어내는 장막은 일시적이고, 무상하고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장막은 우리의 본성을 대신할 수 없고, 본성에 영향을 주지도 못하며, 우리 본성의 한 부분인 것도 아닙니다. 무명은 모든 망상의 뿌리이고, 우리를 계속 윤회하게 만드는 미끼인 것이지요.

공성을 자각함으로써 무명의 장막이 벗겨지면, 붓다의 본연의 성품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태양은 비추기를 멈춘 적이 없으므로, 바람이 구름을 날려버리면 바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동국대 재가이사 선임 놓고 갈등

총동창회, 정관 개정 반대... 종관위 "종단 명예 훼손"

학교법인 동국대의 이사과 감사를 종단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데 대해 동국대 총동창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동국대 총동창회 상임위원회는 1월 29일 '재단 임원 선임 적법절차 촉구 및 정관 개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총동창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회원들에게 송부하기도 했다.

총동창회는 공문에서 "최근 조계종 총무원과 재단이 재가 이사 후임 선출을 놓고 재단 정관 규정과 사학법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재단 이사 정원 13명 중 9명이 조계종 스님이요 당연직 이사인 총장을 제외하면 동문을 포함한 재가자가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3명뿐"이라며 "정관 규정대로 승려 이사는 종단에서 추천하되,

재가 이사는 재단 이사회가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창회 측이 문제를 삼는 개정 정관은 임원 선임 방법을 종립학교관리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조계종 수정 요청 사항이

사학법 공공성 취지 위반

재가이사는 이사회서 선임

동문들에게 공문 송부

다. 이에 따르면 조계종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는 임원을 '조계종 재적 승려 이사 및 감사'에서 '이사 및 감사'로 개정하는 것이다.

총동창회 관계자는 "서명운동을 오는 2월 8일까지 전개해 종단과 재단의 부당한 정관 개정을 동문들에게 알리겠다"며 "동

국대 이사회는 동문이나 교육 행정?경영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는 비율이 너무 적다. 이례는 학교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경)는 1월 31일 동국대 총동창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종단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켰음을 지적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동국대 이사 선임은 종관위 추천과 중앙총회 동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했다"며 "최근 동국대 총동창회가 이사 선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동문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종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총동창회는 오는 2월 6일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차주 상보>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각문화전승관 건립 임기중 가장 보람"

4월말 임기끝나는 혜정 통리원장 소회 밝히

"회당중조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진각문화전승관 건립은 임기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었습니다. 올 5월에는 그 옆에 국제체험관 및 교육관과 수형승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착공합니다. 이것들이 완성되면 비로소 진각성존 보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사진)는 1월 29일 서울 하월곡동 종인원 내 진각문화전승관 4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4년의 소회를 먼저 밝혔다.

올 4월로 임기를 마치는 혜정 정사는

"신규사업 보다는 다음 집행부가 종단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혜정 정사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8개국 언어로 번역한 종조법어집 <진각> 출판물 비롯해 다양한 국제학술행사와 회담문화축제 등을 펼쳤습니다. 또한 오는 4월초에는 밀교수행과 신행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티베트본 <마니칸본>을 완역 출간하고 원문은 CD로도 제작 보급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문화봉사의 기반을 통해 문화재단이 설립이 가속화되면 본격



적인 문화봉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혜정 정사는 "올해에는 스리랑카 회담국제학교 상급고과정 확장으로 유아에서 고등교육에 이르는 교육체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에도 교육과 복지사업을 넓혀갈 것입니다."라고 해외 사업 계획도 내비쳤다. 김주일 기자

'日 도굴 불상 반환' 각계 목소리 <1면에 이어>

김현구 전서산문화원장은 "2004년 부석사 친목단체인 '부남친목회'와 2010년 서산문화원 회원들이 모인 '문화비전21'과 두 차례 대담도 관음사를 찾아 금동관음보살상과 협시불인 대세지보살상을 확인하고 친선교류를 통한 불밀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산 일대에서는 현재 부석사 관음보살상 반환추진위원회 발족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산시도 반환운동을 위한 행정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학계는 일본도 정당하게 반입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980년대 5차례에 걸쳐 대담도에 있는

불상을 전수조사한 경험이 있는 불상 연구 최고 권위자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규슈대 대담도 보고서에도 금동관음보살좌상이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봉안됐다고 기록돼 있다"며 "1350년대 이후 충청지역에 왜구의 침입이 집중되는데 이때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500차례에 달하는 왜구 침입이 있었는데 부석사 인근 지역은 해안으로 왜구 약탈행위가 심했던 곳이다. <고려사절요>에는 공민왕 7년(1358년) 왜적이 한 주(서천)와 면주(당진)를 침범해 노략질했으며, 우왕2년(1376년)에는 공주가 왜적에 의해 함락됐고 논산 개태사도 도륙됐다고

쓰고 있다.

최응천 동국대 박물관장도 "월상태 조성 당시 복장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세에 반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약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에서 점유하고 있으며 약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일본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며 "반환보다 유네스코나 한일 양국이 협의, 또 공동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문화재제자리찾기 공동대표는 "일본 측은 조선 시대 유출된 문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소장 경위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것이 미심쩍다"며 "일본이 스스로 소장 경위를 밝히는

조계종 승려 복지 전수조사 나선다

승려복지회, 신년 계획 발표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가 2014년 수행연금 시행을 위한 승려복지 전수 조사 등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승려복지회는 1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불기 2557년 종단 승려복지회 사업계획'을 밝혔다. 승려복지회는 올해 국민연금 가입 추진을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65세 이상 노스님 복지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승려노후복지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노스님 전수조사의 경우 개인별 노후 대책과 국가 및 지역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 여론수렴 등을 통해 종단 승려복지 모델 및 중장기 계획을 설정할 방침이다.

조사는 3~5월 진행되며 7월 중 백서를 발간한다.

이용권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승려노후복지금은 연간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현재 종단에 모인 승려노후복지기금은 약 18억원 규모"라며 "하지만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사부대중의 인식부족으로 재원 확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진을 일괄 수 있는 승려노후복지제도에 대한 사부대중의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2011년 스님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복리증진을 통해 수행과 포교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수행연금 및 의료·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승려복지법을 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 스님들에게 수행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2월 25일

5. 문의처

-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5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藥大學) 02)511-1080,2026

중국 남경

중·고생 조기유학

1. 입학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2학년

2. 제출서류

- 가족등본, 여권, 여권용 사진7매, 최종재학증명서

3. 제출기한

- 2월 25일까지

4. 유학생특전

- 호텔기숙사,한식제공, 3월 어학후 9월 입학, 고교졸업 후 대학입학 보장
- 1년내 신 HSK(중국어 수평고사 : 4, 5급 보장)

5. 출발일자

- 3월 8일

6.한국상담처

- 02) 511-2026,2027, 010-4552-5281

인터넷홈페이지 : www.njsdfx.co.kr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